

① 脇連少腹攻冲作痛
② 少腹脹痛
③ 畏寒肢冷
④ 疝痛
⑤ 躁急易怒

- ① 水穀을 受納하고 腐熟한다.
- ② 水穀氣血之海 라고 한다.
- ③ 이 臟腑의 氣가 없는 脈은 부드럽지 못하고 이러한 맥을 眞臟脈이라고 한다.
- ④ 舌苔를 통해 氣의 虛實을 판단할 수 있다.
- ⑤ 體內的 血液을 生成하고 統攝하고 約束한다.

- ① 心君火로 말미암아 體溫을 維持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근본은 陽적인 존재이다.
- ② 血熱은 血分에 熱이 있는 상태만을 가리킨다.
- ③ 血液의 運行이 원활하지 못하고 流通이 막혀 疏通되지 못할 경우, 頭暈, 面花, 心悸怔忡, 失眠, 健忘의 증상이 나타난다.
- ④ 飲食物의 精微로 化生하여 上部의 心脈으로 보낸 다음에 血液을 生成한다.
- ⑤ 肝, 心, 腎이 모두 臟器 精을 轉化하여 血로 化生하게한다.

- ① 體內 物質의 生成, 轉化 및 變化 飲食物의 消化吸收, 氣, 血, 精, 津液의 生成 轉化 散布 및 땀이나 소변의 排泄을 담당한다.
- ② 人體의 熱 生産과 一定的 體溫을 維持하며 精, 血, 津液 등 液體狀의 物質이 순조롭게 運行할 수 있는 條件을 만들어 준다.
- ③ 人體의 生長發育 및 臟腑, 經絡의 活動을 推動하며 血液의 運行과 津液의 運送, 散布 및 排泄을 促進한다.
- ④ 人體를 防禦하는 衛外의 功能으로 肌表를 護衛하여 六淫의 侵入을 防止한다.
- ⑤ 體內 精, 血, 津液의 運行과 收布를 統括하여 遺失을 防止한다.

13. 노인병 養生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.

- ① 봄에는 酸味를 많이 먹지 말고 脾氣를 調養한다.
- ② 여름에는 苦味를 먹어서 肺氣를 調養한다.
- ③ 가을에는 매운 음식을 적게 섭취한다.
- ④ 겨울에는 陽氣를 溫補한다.
- ⑤ 暴怒, 思慮, 憂愁, 驚恐 을 경계한다.

14. 補法 중 峻補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大量出血로 인한 虛脫證에 獨蓼湯을 투여한다.
- ② 男性老人이 四君子湯을 長服한다.
- ③ 病證이 확연치 않고 虛弱한 老人에게 瓊玉膏를 투여한다.
- ④ 봄에는 夜臥早起하고 여름에도 夜臥早起한다
- ⑤ 老人에게는 大汗, 大吐, 大下 하는 방제의 사용은 禁한다.

15. 氣病者중 氣力이 약해 숨을 잘 잊지 못하고 호흡이 빈번하며 喘息과 유사하나 肩을 搖動하지 않고 呻吟하는 것 같은나 無痛한 증후는?

- ① 中氣證
③ 下氣證
⑤ 少氣證
- ② 上氣證
④ 短氣證

16. 37세 남성이 최근 들어 쉽게 분노하고 겁이 없이 무모하고 잠이 많이 올 때 辨證은?

- ① 膽虛證 ② 膽寒證
③ 膽實證 ④ 膽蒸證
⑤ 膽熱證

17. 다음 중 腦轉, 耳鳴, 耳聾, 白淫, 骨痠, 痿厥 등의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?

- ① 精實
② 精虛
③ 血瘀
④ 血熱
⑤ 氣滯

18. 허가 붉고 혀바늘이 돋으며 불면 증상을 호소하다가 코피가 나며 사지가 뻣뻣해지고 몸이 뒤로 뒤틀리게 되는 것과 해당하는 五運의 平氣가 맞게 연결된 것은?

- ① 虛邪 木(敷化) → 火(升明) ② 實邪 火(升明) → 木(敷化)
③ 實邪 木(發生) → 火(升明) ④ 實邪 土(備化) → 木(敷化)
⑤ 正邪 火(升明) → 火(赫曦)

19. 47세 남자가 내원하였다. 날씨가 추운데 밖에 오래 서 있다가 다음날부터 열이 나고 뒷머리가 당기고 아프다고 했으며 땀은 나지 않는다고 했다. 이와 관련된 六氣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血에 침입하면 나중에 熱이 되어 위로 上逆한다.
- ② 水液代謝에 영향을 미쳐 기침이 나고 關節이 찌르듯이 아프게 된다.
- ③ 사방으로 퍼져 五臟에 쉽게 들어간다.
- ④ 靜하면 風寒이 되어 인체 下部로 진입한다.
- ⑤ 잘 流動하지 않고 빠르거나 느리지도 않아서 잘 凝結이 된다.

20. 인체는 水穀腐熟으로 精氣를 만들어 臟腑가 陽氣, 즉 火熱을 化生하게 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. 이러한 기능을 표현한 것은?

- ① 少火 ② 壯火
③ 外火 ④ 內火
⑤ 君火

21. 다음 중 以痛爲輸 의 치료 원칙으로 <千金方>에서 天應穴, 阿是穴이라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經絡系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足太陽은 目上綱, 足陽明은 目外眥, 足少陽은 目下綱을 연계한다.
- ② 인체의 前後側面을 연결하여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
- ③ 인체의 가장 바깥부위로서 衛氣가 散布되어 外邪의 침입을 방어하는 울타리가 된다.
- ④ 몸통에서 起始하여 四肢末端으로 행하고 手, 頭, 足, 腹의 순서로 운행한다
- ⑤ 離. 入. 出. 숨의 일정한 운행규칙을 가진다.

27. 다음 氣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?

- ① 營氣와 衛氣는 氣의 기능적 속성을 나타낸다.
- ② 기분, 분위기 등의 情緒的 측면은 에너지적 속성이다.
- ③ 肢體의 寒溫과 運動을 유지하고 先天之氣를 기능화하는 것은 宗氣이다.
- ④ 氣의 생성은 呼吸으로부터 유래하며 血脈을 통하여 全身으로 운행하며 인체의 生長發育을 관장한다.
- ⑤ 大氣, 動氣라고도 하며 腎에서 發源하고 三焦를 통하여 全身으로 운행되어 臟腑, 經絡, 組織, 氣管의 기능을 擊發하고 推動한다.

28. 衛氣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水穀之悍氣
- ② 下焦에 위치한 腎陽의 근본이다.
- ③ 虛하면 四肢가 차고 寒氣를 싫어하게 됨
- ④ 부족하면 頭暈, 目暈, 치녀의 經少 혹은 經閉, 舌淡, 脈細數 등의 血虛 증상을 초래한다.
- ⑤ 形成과 作用, 기능화는 腎, 脾胃, 肺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.

29. 다음 중 津液의 病理生態로 옳은 것은?

- ① 津液이 枯渴되면 陰이 陽을 가라앉히지 못하여 虛陽, 驚厥이 발생한다.
- ② 津液이 부족 혹은 손상을 입으면 血虛, 血虛妄動의 病理가 발생한다.
- ③ 津液이 停留하면 心, 脾, 肝 기능이 협조하지 못하여, 水, 濕, 痰飲 등이 발생한다.
- ④ 津液이 喪失되어 부족해지면 血이 依存할 곳이 없어진다.
- ⑤ 津脫者는 땀이 나지 않는다.

30. 消化機能을 조절하는 각 臟腑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?

- ① 肺의 宣發作用에 의해 水穀精微를 全身에 散布하고 氣血을 化生한다.
- ② 膽의 決斷作用으로 膽汁이 腸道로 排泄된다.
- ③ 大腸의 腐熟作用을 거쳐 水穀이 완전히 消化된다.
- ④ 胃가 水穀을 受納하고 腐熟하는 전제조건이 된다.
- ⑤ 小腸은 傳導之官, 變化出焉 하는 臟腑의 역할을 수행한다.